

社說

포천시정책협의회 구성하자

포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는 교통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포천시위원을 포함한 유력인사 8명과 집중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문제로 교통문제를 꼽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공통된 사항은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었다.

또 협력방식에 있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각자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시민과 지역발전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즘 우리사회는 탈레반에 의한 인질납치 사건,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정당별 갈등표출 등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가. 게다가 장기근속 경직체로 인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천지역사회 역시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포천사회는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모임은 커녕 서로 간에 갈등을 빚어 왔다. 이같은 지역사회의 갈등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있다. 세계질서 흐름과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국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변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정책결정 범위확대 등은 요즘 변화하는 시대상이다.

이처럼 변화의 소용돌이가 물아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누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누구는 시장을 출마한다는 소문으로 갈등을 빚고 다다루어 되겠느냐는 말이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한다면 개인의 명예보다는 지역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더 챙겨야 한다. 그리고 포천미래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협의를 안했으니가 그냥 바라만 봐야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않다. 왜냐하면 방관하는 사람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시안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시민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시민과 유권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출직간의 갈등을 조정하라고 선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단순한 명제를 오피니언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순수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선출직들에게만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천사회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수십년간 몇몇 사람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일방 통행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포천사회가 수십년간 정체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그 기간이 길었다. 포천사회는 변화의 물결에 뒤늦게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다. 변화에 물결에 늦게 동참하면서도 서로간에 반목과 시기, 그리고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포천지역 현안문제가 뭔지 오피니언 리더들은 잘 알고있다. 이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그들 스스로 알고있다. 그 해결을 위해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알고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일 것이다.

■ 특별기고 ■

君明臣直 (군명신직) 이라 했거늘...

‘임금이 밝으면 신하는 곧다’라는 뜻이다. 옛 글에 이르기를 “현명한 임금 밑에서는 간신도 충신으로 변하지만, 어리석은 임금 밑에서는 충신도 간신으로 변한다.”고 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가의 흥망은 임금이 직언을 좋아했느냐 아니면 아첨을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났다.

조선 숙종때의 일이다. 임행어사 이관명은 숙종 왕의 명을 받고 영남 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숙종이 묻는다. “영남지방에는 민폐가 없던가?” 이관명이 대답한다. “통영이라는 고을에 섬 하나가 있는데 대궐의 어느 후궁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그 후궁의 수탈이 너무 심하여 그 섬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하고 정직하게 임금에게 고하고, 또 이어서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삼강

마마의 후궁이 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하고 두려움 없이 아뢰었다.

숙종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참피를 당하자 화가 치밀어 욕음을 높이며 크게 꾸짖는다. “내가 일국의 왕으로서 조그마한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그토록 잘못이란 말이나?” 하며 책상을 내리 쳤다.

그러나 이관명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더욱 또렷하게 정중하게 말했다. “삼강마마께서 그렇게 저의 바른말을 탓하시면 소신은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단정하게 고하였다. 그랬더니 숙종은 고개를 돌리면서 “그만들라면 그만 두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였다. 이관명은 허리를 굽혀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런데 왕은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승자에게 명하기를 “이관명에게 흥문

제학을 제수한다.” 하는 것이었다. 호통을 쳐 내보낸 이관명에게 오히려 벼슬을 높여 조정에서 문서 관리를 하면서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벼슬을 주라 하니 신하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왕은 곧 이어서 또 다시 “흥문제학 이관명에게 호조판서를 제수한다.”하며 인공과 식량 등을 관할하는 높은 벼슬을 다시 주었다.

임금의 잘못을 정직하게 간하는 신하에게 벌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승진시키는 숙종 임금의 훌륭함에 신하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훌륭한 신하에 훌륭한 임금. 그 신하에 어울리는 그 임금이었다.

바른말을 좋아하는 대통령감은 누구 일까? 눈여겨보자!



이중희  
한일교유위원  
경기도민회의 부위원장

정다운 이웃 ⑤

“봉사는 자발적인 헌신적 자세로 해야”

환경파괴로 인해 각종 문제점 고발해야

“올겨니 그르거나 상관 말고 산이든 물이든 그냥 두라. 하필이면 서쪽이 극락이라. 흰구름 걸리면 청산인 것.”

속상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위안을 받는 말이다. 고 외길 김진동 선생이 새 집을 짓고 입주할 때 써준 글이다. 포구하여 거실 중앙에 걸어두고 있다.

포천의제21 산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분(61·사진)위원장은 참수면 오거리 559번지에서 27대째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콩, 개, 메주, 된장 등을 서울시 도봉구와 노원구에 직거래를 시작하지 벌써 15년째다. 농사를 지어 군대에 납품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감자를 캐는 시기다. 일꾼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김광분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1993년부터 4년 동안 계속된 참수면 병원적출물 시설 설치 반대 투쟁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시설물은 결국 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은 상태.

의제21산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환경파괴 등의 고발도 중요하지만 잘된 점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수기업탐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야 한다.

의제21 창립목적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부터 자연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데 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환경상태를 보존하며 지역개발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위원장이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은 것은 김중현 조사위원회 고문의 권유로부터다. 사실 참수면 병원 적출물 설치와 관련해 당시 포천신문의 발행인이었던 박 모씨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 미지가 좋지 않아 김중현 고문의 권유에도 고사했다. 그러나 조사위원으로 3년간 활동해보니 포천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늘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김 위원장은 “요즘 자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하려는 봉사활동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적하고 “봉사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사회 여성리더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개인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담당하기를 바라며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안동김씨 종가터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되도록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 위원장은 포천신문이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분  
포천의제21산업분과위원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소방차량 5분 이내 현장도착 34.9%에 불과

포천소방서, 2007년 상반기 화재 등 분석활동 결과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2007년 상반기까지 이내 긴급차량 출동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결과에 의하면 올 상반기 총 소방활동 3천272건(화재 267건, 구조 394건, 구급 2,611건)으로 5분 이내 출동은 1천144건(출동대비 34.9%)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활동시 5분 초과건수 2천128건에 대한 초과사유는 원거리(5km 이상) 1천592건, 교통체증 및 도로혼잡 294건, 불법 주정차 및 도로협소 112건, 기타(공사중, 도로변방, 사후차지 등) 312건이라고 포천소방서는 밝혔다.

또한 포천소방서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직장교육훈련 및 각 안전센터별 직원들에 대한 5분 출동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하고, 각 업무별 신속한 출동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아파트 44단지 1만5천368세대에 서한문 발송 및 엘리베이터

내 홍보전단을 부착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언론매체 및 관내 전광판 3개소에 ‘소방출동로=생명도로’ 등의 홍보문안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가위사랑 사랑의 약손**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가족 대상 서비스

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중인 단체이다.

봉사가 있는 날이면 멀리 가평이나 양평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가족들까지도 찾아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역 담당 도우미의 안내로 참여한다.

이·미용 서비스와 수지침 봉사는 2007년 1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무료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은 7번째 봉사가 있는 날로 30여명의 보훈가족이 이마용 서비스와 수지침 봉사를 받았으며, 머리를 자르고 파마하는 동안 이동보훈복지팀에서 준비한 다과를 들며 옛이야기 등 담소를 나누며 보훈가족간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의정부보훈지청은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보훈지청(류종열 지청장)은 7월26일 의정부보훈지청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지역봉사단체(가위사랑과 사랑의 약손)와 연계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이·미용 서비스와 수지침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가위사랑(이·미용 서비스, 조영숙 회장)과 사랑의 약손(수지침 봉사, 임무순 회장)은 의정부 자원봉사센터



의정부보훈지청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이·미용 서비스와 수지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우편번호: 월 50,000원 / 년 500,000원 / 평생 5,0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7월 20일 ~ 7월 27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7.7.20 포천신문 제383호 발행  
2007.7.30 포천신문 제384호 발행  
2007.8.10 포천신문 제385호 발행예정